

[로스쿨 합격기]

전환, 그리고 새로운 시작

김 보 라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졸업(2010년)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2011년)

I. 로스쿨 준비를 시작하게 된 동기

저는 처음부터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동학을 전공하면서 법학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동과 가족관련 정책가나 아동학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공공부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공 공부와 학회활동을 통해 아동이 성폭력, 학대, 방임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아동이야말로 법의 보호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장기적 심리치료와 안정된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성인과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동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성인과는 접근 방법부터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행 조항을 마련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

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이영주 검사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조인은 법률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동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는 전문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II. 로스쿨 수험 준비과정

1. 법학적성시험 준비

로스쿨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리트시험이 종종 아이큐 테스트와 비교되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한 학생의 점수 상승 폭과 단 기간 별다른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른 학생의 점수 상승 폭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트시험의 성격이 단순 암기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이해력과 논리력 및 빠른 판단력을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6개월간의 수험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 역시 리트 시험은 준비 기간보다는 '준비 방법'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10년 3월부터 시험이 있는 8월까지 리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룹 스터디를 적극 활용해서 규칙적인 시간에 리트 공부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 언어이해

언어이해 시험은 총 80분이며, 2~3문항의 어법 문제와 약 11개의 독해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주에 1회 분량의 언어이해 문제를 풀고 해답 풀이를 했습니다. 3월에는 리트 기출 문제를 풀었고, 4월에는 미딧 언어 추리 문제를, 5,6월에는 PSAT 행정고시 언어논리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법의 경우, 운이 좋으면 한 두 문제 정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리트는 문항 수가 적은 시험이기 때문에 한 두 문제를 더 틀릴 경우 표준점수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 어법을 단순히 운에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휘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 수능 어휘 문제집을 사서 정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회독을 했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고 어법에 자신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3번 정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법은 어느 정도 안정적

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독해'였습니다. 평소에 독서량이 많이 부족했던 탓인지, 저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면 1,2 지문 정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언어이해 1회를 시간을 재고 풀 후에, 놓친 지문은 다시 한 지문 당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풀어보고, 풀었던 문제를 풀이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풀이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지문과 틀렸던 지문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모든 지문의 분야와 구성 및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분야 별로 혹은 글의 구성 및 성격 별로 묻는 질문과 유형이 나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과학지문과 철학 지문에서의 생소하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저의 독해를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었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글의 구성과 흐름에 따라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어렵고 생소한 단어에 매몰 되어서 글의 큰 틀을 놓치는 것을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쌓인 독해 습관을 단기간에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등한시 했던 과학 서적이거나 철학 서적 1,2권을 읽으면서 생소한 성격의 글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7월에는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최대 약점인 '어려운 글 짧은 시간에 독해하기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여기에는 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PSAT 입법고시 언어논리 문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입법고시 언어논리 지문의 경우, 단어들이 매우 난해하지만, 구성은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문단별로 정리를 하는 것은 저의 단점을 고치고 공부 방법을 마무리 하는 데에 좋은 방법 이었습니다.

(2) 추리논증

추리 논증은 110분 안에 다양한 유형의 35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시험입니다. 저는 언어이해보다 상대적으로 추리논증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해보는 추리논증 문제의 유형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출 문제 1회를 풀어보고, 저의 수준을 가늠해 본 후, 기본서를 풀면서 추리논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유형별로 나뉘어진 기본서를 처음에는 3,4월 안에 1회독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5,6월에는 기출문제와 PSAT 상황판단문제를 풀면서 기본서를 빠르게 복습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언어이해처럼 똑같이 35문항을 푸는 것인데도 추리논증이 시험시간이 더 긴 이유는 그만큼 문제에 깊은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리논증 역시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문제를 읽고 유형을 파악한 후 문제 풀이 과정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 둔 후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접근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시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리 논증의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문제 풀이가 쌓이면 어느 정도 자주 틀리는 유형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데에 오답 노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논술

논술은 크게 자신 있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4,5명이 모여 그룹 식으로 선생님께 지도를 받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리트 문제와 유사한 논술 지문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후, 스터디 원들이 서로의 글을 보고 첨삭해 주며 말로 평가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논술은 꾸준히 글을 써보고 첨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글을 놓고 주장 및 근거를 비교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고력을 확장하고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매끄럽게 고쳐 나갈 수 있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공인 영어시험 준비

로스쿨 입시에서 인정되는 공인 영어시험으로는 토익, 토플, 텡스 등이 있습니다. 리트 시험이 있는 8월이 다가올수록 부담감 등으로 인해 영어 점수를 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영어점수는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인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토익을 선택해서 공부했습니다. 1월부터 토익 실전 문제집을 제한 시간에 맞추어 일주일에 2회정도 풀고,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했습니다. L/C는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5번 듣고 문장을 외우는 방식으로 오답 정리를 했고, R/C는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시험 전날과 시험보기 직전에 활용했습니다. 다행히 3월에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 이 후, 리트 공부에 보다 집중 할 수 있었습니다.

3. 봉사 활동 및 기타 교외 활동

저는 로스쿨 입시를 위해 특별하게 법학과 관련된 외부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부시절 틈틈이 병원 및 관공소에서 외국인 안내 봉

사활동 90여 시간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로스쿨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외부활동 역시 크게 욕심을 내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법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나, 향후 자신이 되고자하는 전문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4. 면접 및 자기소개서 준비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모든 전형요소가 중요하지만, 제가 지원한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면접의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저는 면접에 남다른 각오로 임했습니다. 리트 시험을 마치고 8월 마지막 주부터 면접 시험이 있는 11월 중순까지 약 3달여의 기간 동안 스터디를 꾸려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역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면접은 특히 면대면으로 이루어지거나 집단 토론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성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대비 도서 중에 한 권을 골라 주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고 그 날의 주제를 선정하는데에 주교재의 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스터디 원들이 각자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책에 나오지 않는 부수적인 정보들을 스크랩해온 후 스터디에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주제에 관한 발제를 2,3개씩 준비해오고 발제에 맞추어서 찬반을 나눈 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후 9월 마지막 주부터 서류 제출이 마감되는 10월 첫째 주까지는 스터디 원들이 서로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주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법학도가 되고자 하는 동기 및 살아온 과정, 그리고 법학도로서의 앞으로의 자세를 면접관들에게 짧은 글로 보여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개서는 진솔하게 작성하되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하며, 저는 최종 제출까지 9번 정도의 첨삭과정을 거쳐서 자기 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면접 방식을 숙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면접 문제와 답변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의 경우에는 시사적인 문제를 법학에 녹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준비했습니다. 발

언 시간에 맞추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머를 맞추어서 실제 면접장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모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스터디원이 저의 면접 과정을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모의 면접 후 평가지에 면접관 역할을 한 스터디 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고, 동영상 속에 담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세와 어투 등을 고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III. 입시를 마치며

약 9개월간의 수험기간이 답답하고 힘이든 적도 많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학도로서의 자세를 키울 수 있었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이 길을 걷고자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진중하고 겸손한 법조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 글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으셔서 로스쿨 준비를 성공적으로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